

THE UNITED METHODIST CHURCH  
NORTH GEORGIA EPISCOPAL AREA

SUE HAUPERT-JOHNSON  
RESIDENT BISHOP

JUDY IMIG-BUSH  
ADMINISTRATIVE ASSISTANT

2021 년 9 월 16 일

아틀란타한인교회에 보내는 목회 서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애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인 아틀란타한인교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특히 큰 사랑을 바쳐 오신 것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달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김세환 목사님에 대한 고발절차를 진행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 고발되신 분들을 위해, 우리는 UMC 장정 (2016 년 판) 에 명시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들의 용기는 칭찬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중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기도하고 분별하며 진실을 추구해온 다른 많은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발절차가 합당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평신도와 목회자로 구성된 북조지아연회 조사위원회 (Committee on Investigation) 가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마쳤음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조사위원회는 김세환 목사님의 혐의들을 교회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UMC 장정 ¶ 2706.5(c)(2) 의 조항에 의거해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감독인 저와 북조지아연회 감리사회 (the Cabinet of the North Georgia Conference) 의 “행정적인, 또는 다른 조치” (administrative or other action) 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치를 위해 전달된 문제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을 잘못 관리한 것 (Financial Mismanagement)**

Brooks, McGinnis & Company, LLC 에서 실시한 forensic 재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세환 목사님과 아틀란타한인교회의 지도자들은 김 목사님의 전체 사례비를 IRS 와 Georgia Department of Revenue, 북조지아연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excess benefit transactions 는 연간 2 회의 보너스, 휴가비, 김 목사님의 가족들을 위한 여행 경비, 김 목사님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증빙서류가 제대로 없는 크레딧 카드 사용액, 개인적인 의료비용, 그리고 교회에서 김 목사님을 위해 Wespath (United Methodist Pension Agency) 에 초과 개인연금납부 (excess UMPIP) 를 해 준 것이며, 이상의 excess benefit transactions 총액은 \$248,206.87 입니다.

- **장정에 어긋나는 교회구조와 운영 (Noncompliant Polity)**

아틀란타한인교회의 리더쉽 구조 (leadership structure) 는 UMC 장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틀란타한인교회 담임목사님들이 실행위원회 (the Administrative Council = the Administrative Board) 의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담임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이해관계 충돌 (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야기하며 교회의 평신도 리더쉽을 심각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아틀란타한인교회의 리더쉽 구조가 장정에 어긋나는 또 한 가지 사항은 기획위원회 (Steering Committee) 를 운영한 점입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에서 권위가 부여된 위원회들이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권 (a de facto veto power) 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장정이 요구하는 리더쉽 구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 **연회의 조치들에 대한 심각한 불응 (Disruptive Response)**

지난 몇 달 동안, 교회의 장로들과 비상대책위원회 (후에 '위기대응팀' (a Crisis Response Team) 으로 불리기도 한) 의 지시에 의해 감사관들의 작업이 심각하게 방해 받았으며, 교회 주차장이 봉쇄되고 예배당 문에 쇠사슬이 채워졌고, 정당하게 파송된 임시담임목사님들이 설교와 예배 인도를 못하도록 방해 받았으며, 예배 시간에 시위가

벌어졌고, 스태프들은 그들이 연회와 임시담임목사들에게 협조하면 해고될 것이라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세환 목사님은 직무정지 기간 중 계속해서 교인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함으로써 직무정지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바램은 아틀란타한인교회의 재정 시스템과 리더쉽 구조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아틀란타한인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교회 지도자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틀란타한인교회 재정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건강한 해결책을 가져오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는 아틀란타한인교회가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난 수 개월간의 고통과 슬픔은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연회는 이 훌륭한 교회가 다시 지역사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며 귀넷 카운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데 헌신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아틀란타한인교회에 적절한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기도하고 속고하며, 분별하였고, 또한 여러분의 목회협력위원회 (the SPRC) 와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감독으로서, 그리고 감리사회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아틀란타한인교회가 다시금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느냐가 우리의 최우선적인 물음이 되어왔습니다.

우리의 경험 상으로 교회 문화 (church culture) 는 교회 리더쉽에 의해 조성되고 좌우됩니다. 교회 문화는 교회 리더쉽를 통해 힘을 얻고 영감을 받으며 담임목사는 교회 문화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목회 리더쉽이 건강한 치유를 가져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 건강한 교회 문화가 형성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 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이 아틀란타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분열과 염려를 자아냈음을 알고 있기에, 치유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감리사회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아틀란타한인교회에 목회사역이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영진 감독님과 정민호 목사님을 아틀란타한인교회의 공동 임시담임목사로 파송하게 되었음을 발표합니다. 북조지아연회 감독인 저와 감리사회는 후임

담임목사님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로드리고 크루즈 감리사님과 여러분 교회의 SPRC 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새 담임목사님을 잘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김세환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의 치유와 목회 지도력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보다 건강한 목회 방식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다른 목회지로 파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김세환 목사님의 새로운 목회를 위해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아틀란타한인교회에 보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밝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 개월간의 시련을 잘 헤쳐 나오셨고, 이제는 얼마든지 귀넷 카운티와 그 너머로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 사역을 펼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사업에 큰 선물입니다.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오로지 우리 각 사람이 성숙하게 되어 깨어지고 상처 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가져오는데 헌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옳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12-13).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Bishop Sue Hauptert-Johnson and

The Cabinet of the North Georgia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